

## 동해해수청, 겨울철 대비 항로표지 특별점검 실시

- 관내 시설물 185개소 대상 일제 점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영)은 오는 11월 1일(금)부터 12월 20(금)일까지 겨울철 대비 항로표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겨울철은 한파, 폭설 등 기상악화로 인해 항로표지 기능 일시정지하는 등 해양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및 결빙으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이 빈번하므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참고로 “항로표지시설”이란 빛, 음파, 전파 등을 이용하여 항해하는 선박에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 대표적인 시설물로 등대, 등부표 등이 있다.

이번 점검은 등대의 빛을 밝히는 등명기 및 장비용품 전반에 관한 기능상태 확인, 다중이용시설인 묵호, 주문진, 속초등대의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소방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은 중·장기 보수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할 계획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주기적인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국민의 안전과 신뢰성 있는 해상교통 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책임자	과 장	김동식 (033-520-6271)
		담 당	계 장	김형건 (033-520-6274)



등명기 작동상태 점검



시설물 안전점검